

김길복 권사 초청 전도간증집회

천국 혼자 갈 순 없잖아요
I can't go to heaven alone.

■ **일시: 2007년 10월 21일**
주일3부예배 오후 2시 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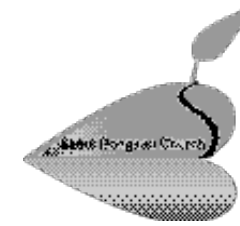
미래를 향해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 기관 그리고 교회

네팔(정정영, GMD) 요르단(양일주, 김현숙) 중국(이정삼, 유인영, 유혜경, 김성남, 김선화) 카자흐스탄(최진규) 터키(강그레이스) 파키스탄(Zaman Anjum) 푸에르토리코(김혜진, 한희숙) 기독교보 월간고신 기독교북한선교회 생의료복지재단(북한선교재단) 중동선교회 한민족복지재단(북한행공장)

구역이 지원하는 선교지, 기관 그리고 교회

중국(김정국 - 청1 / 이산지 - 청2, 청5) 터키(진요한 - 청4, 청6, 노원1, 노원3) 필리핀(정순성/손은경 - 청국, 중랑1, 성북1) 광둥교회(한익서 - 노원2, 장유) 군산 성복중앙교회(최상권 - 북부, 성북2) 사랑의 교회(김희준 - 청9) 회정교회(오수목 - 소망, 남부) 양평식장교회(도봉1) 황성장로교회(조원래 - 중랑1, 중랑2) 교회개혁 실천연대(도봉2, 청7) 수도권미세교회포럼(영산)



입맞춤과 붙좃음 (룻1:14-17)

김대진 목사

한 주간 남북한 정상들의 만남을 보면서 새롭게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전쟁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로 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교전 중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북에 가족과 고향을 두고 떠난 실향민들과 이산가족들은 지금 이 시간도 마음 졸이며 고향 땅을 애타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고향을 떠난 한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나오미라는 여인이 살던 곳에 흉년이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나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두 명의 며느리를

손길임을 깨달은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에서 모든 걸 잃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작별인사를 고향합니다. 자신을 따라오면 희망이 없으니 너희는 너희 갈 길을 가라고 합니다. 그때에 두 자부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룯은 그를 붙좃았더라(14절)" 큰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권유대로 입맞춤하고 자기의 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작은 며느리 룯은 시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붙좃았습니다. 붙좃았다는 말은 바짝 달라붙었다는 말입

까지 어머니를 붙좃은 룯의 모습이 참으로 귀한 시대입니다. 때로는 붙좃아야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세상의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세상의 질타를 당하는 교회를 붙좃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의 말씀을 붙좃아야 합니다. 어머니의 고통에 동참하지 않은 오르바는 더 이상 성경에서 이름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붙좃은 룯에게는 하나님의 보호 하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룯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룯

L · o · v · e · l · y · · · C · h · u · r · c · h · · · w · i · t · h · · · J · e · s · u · s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모압에서의 10여년 동안의 삶은 더 절망적인 형편이 되었습니다. 남편도 잃고 두 아들까지 잃었습니다. 후손도 없이 과부 3명만 남게 되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고향 땅에서 양식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다시 고향 땅으로 되돌아가고자 합니다.

고향을 향해 출발하는 나오미의 심정이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며느리들을 향해 던진 나오미의 말 속에 모압에서 겪은 일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오미는 고향을 떠난 것이 잘못된 선택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모압은 이방 땅으로 거짓 선지자 발람의 출신지역입니다. 신앙적으로 매우 질이 나쁜 지역입니다. 그곳의 여인들을 떠느리로 맞이했으니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 결과를 나오미 스스로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되었지만 이것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 놀라운 신앙고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도 나도 유숙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16,17절)"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온 수로보니게 여인을 외면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외치는 여인의 간구를 듣고서도 예수님은 이방 여인이라고 박대하시기까지 했습니다(마15:24).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하며 예수님을 붙좃았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붙좃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작은 며느리 룯처럼 어떤 형편과 처지에도 주님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오미가 작별인사를 고향했지만, 끝



집사님, 시원하시죠~ 힘내세요!

은 다윗왕의 증조모가 되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렸던 것입니다.

룯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좇아갈 때의 심정이 찬송가 338장의 가사와 꼭 들어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붙좃는 자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주일설교 하이라이트) 예수사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13:35)

사 · 랑 · 과 · 은 · 헤 · 가 · 넘 · 치 · 는 · 예 · 배

주일 1·2부 예배 1부: 9시 30분/2부: 11시 30분

인도: 김대진 목사

*입례송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예배로의 부름

기도인도 1부 정효기 집사
2부 오정관 장로

찬 송 13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성서교독 제35문 이사야 35장

신앙고백 사도신경

봉헌찬송 478장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봉헌예물

봉헌기도

*말씀봉독 룻기 2:1-12 (구 403면)

찬 양 1부 호산나찬양대
2부 할렐루야찬양대

광고&성도의 고제

말씀선포 "주님의 날개 아래"

헌신의 기도

*폐회송영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축 도

* 표는 헌신의 뜻으로 일어섭니다.

교독문 제35문 이사야 35 장

인도: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회중: 사막이 백화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인도: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회중: 그것들이 여호와와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이다
인도: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회중: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인도: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떨 것이며
병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회중: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인도: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부르리니
회중: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인도: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다같이)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화관을
끼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주일3부 찬양예배 오후 2시 30분

인 도 김준석 강도사
기 도 김길용 집사
성 경 딤후 3:15-17 (신 346면)
설 교 김준석 강도사
"성경암송의 유익"
축 도 김대진 목사
성경암송대회

수요일예배 저녁 7시 30분

"감추인 보화와 진주"
성 경 마 13:44-46 (신 22면)
설 교 박 신 강도사
기 도 변인수 집사
가족찬양 박 신 강도사
찬 송 55장, 241장, 359장

목요일예배 오후 1시 30분

인 도 김대진 목사

금요일기도회 저녁 9시

설 교 박 신 강도사
기도인도 박 신 강도사
찬양인도 김준석 강도사

새벽기도회 매일새벽5시

인 도 김대진 목사

동 산 소 식 - 2007년 교회표어: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라! (고후 5:9)

1. 사랑이 넘치는 서울동산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2. 성경암송대회 - 3부 예배 후 성경암송대회(주관: 바울 남전도회)가 있습니다.
3. 전도간증집회 ①다음주 3부 예배시 김길복 권사님이 전도간증을 합니다. ②다음주 3부 예배는 에스더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③하반기 전도주일은 12월 23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4. 하반기 학습·세례식 - 11월 18일 2부 예배시에 있으니 신청해 주세요. - 교육: 주일 오전 10시 8층 새가족부실(문의:김성애 전도사)

5. 제1회 비전컵 어린이 축구대회 - 오늘 3시 30분에 2차전 경기가 있습니다. (현재전적: 1전1승)
6. 피택자훈련 -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7. 수요일제자반 - 수요일예배 후에 있습니다.
8. 동서울노회 안내 - 10.15(월)~16(화) 속초신흥교회
9. 전체교사 모임 - 10.26(금) 저녁 7시부터 식사 및 연구발표, 전체기도회가 있습니다.
10.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부금 납입증명서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주 예배기도당번 (10.21)

- 1부: 김성웅 집사 • 2부: 백동선 장로
- 3부: 에스더헌신예배 • 수요일: 서건숙 집사

예배모임안내

• 주일 1부	09:30	7층	• 영아부	11:30	6층
• 주일 2부	11:30	7층	• 유치부	09:30	6층
• 주일 3부	14:30	7층	• 유초등부	09:00	6층
• 목요일예배	13:30	7층	• 중고등부	11:00	6층
• 노방전도(목)	14:30	6층	• 청년부	13:30	6층

10월 봉사위원

- 안내위원 1부 문용현 집사 이정옥 집사 • 2부 김종국 집사 문복순 권사 정동/상동구역
- 헌금위원 1부 문용현 집사 이정옥 집사 • 2부 김종국 집사 문복순 권사

[10월 목회계획]

21일 에스더헌신예배 전도간증집회(김길복권사) 하반기구역장세미나
28일 종교개혁주일 찬양예배 당회

[11월 목회계획]

4일 연합찬양예배 123특새 정기제직회 교회살림주일
11일 마리아헌신예배

어느 누구나 오를 수 있는 복음의 동산

사랑의 동산

도봉산에는 가을의 발자욱 소리가...

날마다 오르는 도봉산 기슭 밤나무굴(무수굴)에는 이제 가을 빛이 조금씩 깃들고 있습니다.

주말농장에 가득한 김장용 배추포기엔 가을 맑은 햇살에 고갱이가 차오르고... 알밤은 이미 다 떨어져서 귀여운 다람쥐의 발길도 뜸해졌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숲속 오솔길엔 일찍 떨어진 낙엽이 바스락 새벽의 고요를 깨웁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날을 빼고 매일 새벽 오르는 산길은 어제의 그 모습이 아닙니다. 매일 새로운 빛깔, 새로운 향기로 나그네를 맞아줍니다. 세상에 묻혀 허겁지겁 사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수레바퀴를 이끌고 가십니다.

진달래 꽃잎을 밟으며 오르던 게 엇그제인데... 얼마 후 도봉산 꼭대기에서 뭉개 단풍이 물들어 내려올 것을 상상하면 벌써 마음이 황홀합니다. 그리고 낙엽이 지고.... 흰눈이 내려 쌓이고 가지마다 눈꽃이 피고...새봄이 오겠지요

산중턱 너럭바위에 앉아 수락산과 불암산 사이로 떠오르는 아침 해를 하나님의 얼굴인 양 마주 앉아 희개와 감사, 그리고 소망의 기도를 드립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나무처럼 날마다 거듭나게 해 주시길... 죄와 허물, 교만과 아집의 낙엽을 지우고 어제의 나를 버리게 해 주시길... 나의 알량한 지식에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심으로 만나는 나의 이웃들에게 희망과 사랑의 빛이 되도록...

산을 홀로 내려오다 보면 온몸에 내리는 햇살 그 풍성한 주님의 은총 속에서 오늘 하루, 아니 남은 인생길 가게 해 주시길...

글쓴이 / 김석환 집사

사랑이 넘치는 서울동산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동산교회는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옥고를 치루셨던 분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고신교단에 속해있는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회입니다.

서울동산교회의 비전을 소개합니다.

▶ 어느 누구나 오를 수 있는 복음의 동산

유대인도 헬라인도 가난한 자도 부유한자도 죄인도 병자도 차별 없이 어느 누구나 다 오를 수 있는 나지 막한 동산이 되기를 바라며 복음의 능력이 운행하는 교회를 꿈꿉니다.

▶ 균형 잡힌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

좌우 한 쪽으로 치우친 가르침이 아니라 말씀을 균형 있게 가르치고 훈련하여 독수리 날개 치며 오름 같이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를 꿈꿉니다.

▶ 미래를 향해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으로 상처 입은 사회와 개인을 치유하며 노인과 청년이라는 두 그룹의 사역에 집중 함으로 중형교회로서 특화된 사역을 감당하는 치유 공동체, 사역공동체를 꿈꿉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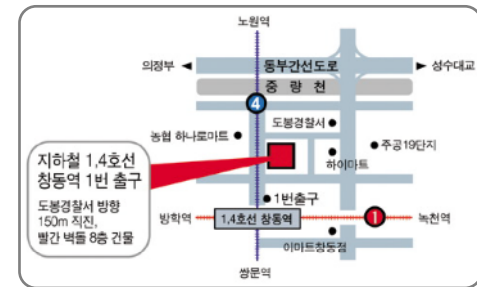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김대진
시무장로: 최병호 정재만 오정관 백동선
피택장로: 김성웅 문용현
은퇴장로: 강장환
부교역자: 박 신 강도사(교육/행정/학사관/1교구)
김준석 강도사(음악전담/인터넷/2교구)
김성애 전도사(심방/새신자부/기초양육)
이우리 전도사(중고등부/청년부)

■ 서울동산교회 안내

주소: 우)132-899, 서울시 도봉구 창4동 14-4
전화: 02)900-2232
홈페이지: www.dongsan21.org

〈찾아 오시는 길〉



...도봉구지역 교의 연합과 교외학교 부흥을 위한...

제1회 비전컵 VISION CUP 어린이 축구대회

예선(리그전): 2007년 10월 7,14,21일(주일) 오후 4시-6시 본선(결승, 3-4위전): 10월 28일(주일) 오후 4시-6시
주최: 4개 교회(반석교회, 백운재교회, 서울동산교회, 창동제일교회) 교회학교 연합

균형잡힌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